

**「OECD 단기경제통계 작업반회의」  
제6차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The 6<sup>th</sup> Meeting of the OECD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orking Party(STESWP)**

**Paris, 25-27 June 2007**

**통 계 청**

## I. 회의개요

**1. 회의명칭** : 제6차 OECD 단기경제통계 작업반 회의

The 6th Meeting of the OECD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orking Party(STESWP)

**2. 회의주관** : OECD 통계국(Statistics Directorate)

**3. 회의기간** : 2007. 6. 25 ~ 6. 27 (3일간)

**4.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5. 회의참가자** : 32개국, 4개 국제기구, 전체 67명

○대부분 참가자는 국가 통계청 소속이며 국제기구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C(European Community), UN(United Nations), OECD

**6. 한국참가자(3명)**

- 통계청 산업동향과 심원보 사무관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전택련 주무관
- 한국은행 윤면식 OECD 주재관

**7. 주요 회의주제**

- 단기경제통계 작성시 행정자료 프레임워크 최종 작업  
(Final work of the task force on the development of the dynamic web-based framework on recommended administrative data practices)
- 단기경제통계 수정분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Development a set of guidelines on best practice for performing and using the results of revisions analysis and its relation to revision policy)

- 단기경제통계 제공 및 분석에 대한 최근의 진전사항 발표  
(Recent development in the pres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short-term economic indicators)
-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발표  
(Release of the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발간  
(Release of the OECD Compilation Manual for an Index of Service Production)
- 산업분류 개정 이행 및 Backcasting 기법  
(Implementation of revised classifications/Backcasting)
-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 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s on seasonal adjustment practices)
- 주요 비 OECD 회원국의 단기경제통계 작성 사례 및 국제비교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in large emerging and non-member economies, their comparability and implications)
-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Infra-annual statistics on capital expenditure and company profits)
-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ices for services(SPPIs))
- ※ 자본적 지출 및 기업 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를 제외하고 전년도 주제와 동일

## 8. 회의 일정

### 6월 25일(월)

Introduction 소개

- Item 1 OECD 단기경제통계의 최근 개발 내용 및 향후 개발계획
- Item 2 단기경제통계의 행정자료 이용
- Item 3 OECD/Eurostat의 단기경제통계 수정분석
- Item 4 단기경제통계 제공 및 분석에 대한 최근 진전사항
- Item 5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발표

### 6월 26일(화)

- Item 6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발간
- Item 7 산업분류 개정 이행 및 Backcasting 기법
- Item 8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 개발
- Item 9 주요 비 OECD 회원국의 단기경제통계 작성 사례 및 국제비교
- Item 10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 Item 11 단기경제통계 시의성 제고 프레임워크

### 6월 27일(수)

- Item 12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 Item 13 유통통계(구조통계 및 단기통계)에 관한 UN의 가이드라인 개발
- Item 14 향후업무

## 9. 회의성격 및 운영방식

- OECD 단기경제통계 작업반회의(STESWP,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orking Party)는 단기경제통계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통계 지표의 국가간 비교성을 향상시키며 통계 작성 기관간의 협조를 높이기 위하여 OECD 회원국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그동안 5차례 (2002년 6월, 2003년 6월, 2004년 6월, 2005년 6월, 2006년 6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이 6회째임

- 회의 안건 및 논점의 중요성으로 인해 통계위원회(CSTAT)의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 역시 작년 회의부터 '단기경제통계 작업반(STESWP)'으로 변경(이전은 '단기경제통계 전문가 그룹(STESEG)'이었음)

- 회의 위계 :

CSTAT (통계위원회) > 작업반회의 (Working Party) > 전문가회의 (Expert Group) > 워크샵 (Workshop)

의장 : Gian Paolo Oneto (ISTAT, Italy)

부의장 : Symon Algera(Statistics Netherlands)

Robin Youll(UK 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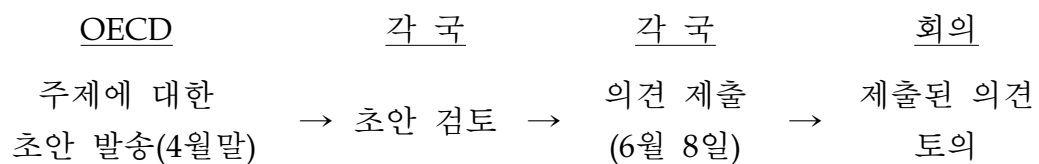
Thomas Zabelsky(US Census Bureau)

- 단기경제통계 작성시 행정자료 활용, 단기경제통계 수정분석 및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발표 및 향후 방향,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발간, 산업분류 개정 이행 및 시계열 연결기법,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 비 OECD 회원국의 단기경제통계 작성사례 및 국제 비교, 자본적 지출 및 기업 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서비스업생산자물가지수 등에 대한 Task Force 팀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회의 참가국은 각 주제에 대한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

- 4월 말경 Task Force 팀의 활동 결과에 대한 초안을 각국에 E-mail로 발송, 각국은 각 주제에 대한 의견을 OECD에 6월 8일(금)까지 회신

- 본 회의에서는 각국에서 제출한 의견 요약과 그에 대한 토의가 함께 이루어짐

<회의 흐름도>



## 10. 향후 계획

### ○ 2008년 회의는 6월 23-25일, 파리에서 개최(잠정)

#### - 향후 주요 회의 주제

##### · 주요 사항

타 국제기관 업무와 중복 지양 및 협력, EC/CIRET과 함께 타 포럼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전망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수행, 타 작업반 회의와 함께 국민계정 및 무역통계 논의

##### · 향후 작업

수정분석 완료, 단기경제통계의 제공 및 분석, OECD Presentation 핸드북의 주요 권고사항 이행, 산업분류 개정 및 시계열 연결기법 이행, 계절조정기법, 주요 비 회원 국가와의 주지표 비교, 서비스업생산자 물가지수, UNSD와 함께 국제통계기준 개발, 행정자료프레임워크 업데이트 등

## 11. 회의 참석 결과

### ○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세금 및 사업자 등록 자료를 통계 자료 작성 시 주로 이용하고,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장단점 분석이 활발한 통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행정자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자료의 이용 실적이 전무한 편임. 행정자료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노력이 요구됨

- 응답자 부담 경감, 비용 절감 등 행정자료의 이용은 통계 작성 과정에 많은 편익을 가져오나 통계목적인 아닌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자료의 활용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통계 작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 체계적인 수정분석시스템 마련 필요

- 자료의 보정을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 통계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보정에 대한 결과 분석이 미비한 실정

- 현재까지 소개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수정분석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수정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통계 품질 향상을 꾀하고 외부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
- **서비스업 생산지수 선진국으로서의 사례 공유**
    - 캐나다의 월별 GDP, 일본의 제 3차 산업지수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작성하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
    -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작성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지만, 현재 개발 시험 단계 및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의 선진 사례를 그들과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장기 시계열 작성 기법 사전 준비**
    -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기준연도 변경(2000년에서 2005년)에 따른 시계열 단절 문제를 고려하여, 시계열 유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국가통계 기관으로서 사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외국의 선진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
    - 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 시계열 유지가 필수적이며 시계열 연결 기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시계열 연결기법(Linking) 및 과거자료 재구성기법(Backcasting)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적용이 필요함
-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 확보**
    - 지속적인 통계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통계 선진국 및 국제 표준 사례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정기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제기구 및 타국 통계청과의 연계를 통해 비정기회의 및 기타 관련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유대 관계를 맺을 필요
      - 경상업무 수행과 더불어 국제회의를 준비하여 참여하기에는 인력 및 시간 등의 여력이 부족하며 한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몇몇 통계 선진국과 달리 자주 업무가 바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회의 참석 인원을 증원시켜 준비의 충실성을 기하고 국제 회의 업무의 연계성을 꾀

할 필요 있음

- 계절조정, 개편 및 보정, 메타데이터, 각종 매뉴얼 등 통계적 방법론 (Statistical Methodology)과 관련된 부서설치를 통해 연구 검토 및 적용 등 필요성 증대

## II. Task Force 개요

### 1. 활동배경

- OECD 단기경제통계작업반(STESWP,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orking Party)은 단기 경제통계의 일반적인 문제점들과 국제간 비교성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OECD 비유럽회원국과 EU국가가 모두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2002년 6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제1차 회의에서는 서비스부문 단기경제지표, 자료발표 및 계절조정, 시의성과 자료추정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외에 자료수집비용 및 응답자부담 축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이어 2003년 6월에 열린 제2차 STESEG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선정된 주제로 태스크포스 업무추진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4년의 6월의 제3차 회의에서도 각 태스크포스의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05년 6월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서비스업부문 단가지표, 시의성 및 자료추정, 행정자료 이용 확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각국 현황 등 각 태스크포스의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CSTAT의 공식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2006년 6월에 열린 제5차 STESWP 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주요 비OECD 국가도 참여하여 수정분석, 개정 산업분류에 따른 장기 시계열 작성문제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주제인 행정자료 이용,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작성, 시의성 제고 프레임워크 등에 대해서도 작년에 연이어 논의함



- 2007년 6월에 열린 제6차 STESWP 회의에서는 자본적 지출 및 기업 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년의 논의 되었던 주제를 마무리 하거나 연이어 계속 논의하였음

## 2. Task Force 팀별 소주제 및 담당기관

### 1) 단기경제통계에서의 행정자료 활용

- 웹기반 행정자료 이용 프레임워크 최종 작업 발표 : OECD
- 프레임워크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요약 : OECD

### 2) 단기경제통계의 수정분석

- 수정분석 결과 이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OECD와 Eutostat의 작업 : OECD
- 수정분석과 관련된 통계의 체계적 분류 명명법 초안 : 영국
- 원계열 대비 계절조정계열의 수정 영향 및 타이밍 : OECD
- 계절조정, 영업일수조정 계열 및 원계열의 수정 차이 : 이탈리아
- 월별 GDP의 수정 과정 및 정책 소개 : 캐나다
- 수정 분석의 목적 및 메타데이터 정보 유무에 따른 수정분석 차이 : 독일

### 3) 산업분류 개정 및 시계열 연결기법

- 신 산업분류에서의 가중치 재산정 및 과거 기준연도의 시계열 연결 : OECD
- 산업분류 개정과 시계열 연결기법의 최근까지의 작업사항 : Eurostat

## III. 회의내용 요약

※ 회의와 관련된 논문 및 PPT 자료 등은 다음 site에 있음

<http://www.oecd.org/std/STESWP2007>

**Meeting of the OECD 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Working Party(STESWP)-Paris, 25-27 June 2007**

## 1. 2006년 회의 이후 활동결과 요약

- STESWP의 업무 성과
  - 서비스 생산지수 매뉴얼 최종 작업
  - 행정자료 프레임워크 TF 최종 작업
  - CSTAT 자문 이후의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발간
  - 주요 단기경제통계의 수정분석 웹기반 데이터베이스 생성
  - 산업분류 개정 및 Backcasting 작업 이행
  - 단기경제통계의 제공 및 분석에 관한 최근 개발 사항
  - 주요 비 회원국가의 단기경제통계 진전 사항
- 기타 업무성과
  - OECD 회원국의 비교가능한 연간 및 분기 단위 노동비용지수 발표
  -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경제 지표의 단기경제통계 및 메타데이터 발표 확대
  - EC와 협력하여 BTS 및 COS 범위 확대
  - Eurostat, IMF, ECB와 함께 자료수집활동 확대
  - OECD 공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 새로 착수한 작업
  -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의 단기통계
  -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 유통통계의 UN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 개발

## 2. 단기경제통계의 행정자료 이용

- 이전 회의자료 요약
  - 응답자부담 경감, 비용 절약 등의 편익성 때문에 단기경제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행정자료 이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통계목적이 아닌 행정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질이나 포괄 범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행정자료 이용 경험을 공유하여 이용성을 증진시키자는 의견이 제안됨

- 작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레이아웃 추가
  - 기존 프레임워크 : 행정자료 이용 관련 논문 및 보고서 수록
    - 7개의 일반적인 분류로 논문 및 보고서 분류
    - 각 분류별 간단한 설명 기술
    - 각 분류는 단기통계 및 그 외 통계(구조통계)로 다시 분할
      - 현재는 구조통계에 관한 자료가 다수
  - 추가 프레임워크 : 행정자료 활용 관련
    -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과정에 편입시키는 방법에 관한 프레임워크
    - 행정자료를 처음 활용하거나 단기경제통계에 행정자료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통계청을 대상으로 함
    - 법적 처리/행정자료기관과의 협조/행정자료 활용법/활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행정자료 편입방법 으로 분류
  
- 회원국 대부분이 프레임워크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위해 관련 논문 및 보고서의 정기적인 요청이 있을 예정

### 3. 단기경제통계의 수정분석

- 이전 회의자료 요약
  - 발표된 수치의 질 개선, 자료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통계 수치의 수정에 대한 통계 이용자들의 관심 증가 등의 목적으로 수정분석 필요
  - 수정분석은 Mean Squared Revision에 의해 측정
  - 단기경제통계의 수정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
  
- 단기경제통계 수정분석 TF 목적
  - 수정분석 결과를 수행하고 활용하는데 최적의 사례에 대한 지침서 개발
  - 이용자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관련 정책 권고사항 작성
  -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 수정분석을 행할 수 있는 표준 도구 제공
  
- 사례발표 1:
  - <영국의 수정분석과 관련된 통계의 체계적 분류 명명법 초안>
    - 수정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정의하고 그 원인들을 동질그룹별로 분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

- 각 나라별,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 및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분류 명명법이 TF 팀을 통해 작성되어야 함을 주장  
(영국의 예 : 상시 수정 / 주기적 수정 / 특별 수정)

○ 사례분석 2:

<OECD의 원계열 대비 계절조정계열의 수정 영향 및 타이밍>

- 몇몇 나라의 원계열, 계절조정계열의 수정 크기, 수정 발생 및 편차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소개
- 계절조정계열에 비해 원계열의 전월비 수정크기가 작게 나오며, 원계열의 수정크기는 첫달이후 급격히 작아지고, 계절조정의 수정크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
- 현 분석 보고서에서 사용한 수정분석 도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 그 외 이탈리아, 독일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수정분석 사례 소개

#### 4. 단기경제통계 제공 및 분석에 대한 최근 진전사항

○ 기존의 통계표, 그래프 외에 단기경제통계 자료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각 국 사례 소개

○ 사례분석 1:

<독일의 개인 물가지수 계산기>

- 빈번하게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흐름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물가 통계 정보 제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 대중이 가지고 있는 국가 통계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옴

○ 사례분석 2:

<OECD의 주요 경제 지표 제공에 관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

- 주요경제지표 간행물의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 및 기능 추가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공지

## 5. OECD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발표

- 2006년 말에 발간된 핸드북 및 핸드북의 웹버전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 소개
- 단순히 참고적인 기능만 할 것인지, 강제성을 띤 권고사항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각국 의견 조회
  - 주요 지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 6.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발간

- 이전 회의자료 요약
  -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은 4년 동안 24국에서 의견 제시
  - 전 세계적으로 전체 GDP 대비 서비스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성이 있으며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업 통계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Task Force팀 발족
  - 통계 단위 및 분류에 관한 인프라, 용어와 자료 출처, 지수시산방법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기초 내용에 관한 초안 작업(2003, 2004)
  - 디플레이터 관련 이슈들과 국민계정과의 비교, 지수작성방법 및 가중치 개편 주기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2005)
  - 통계위원회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 승인(2006)
- 단기경제분석 및 분기 GDP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업 생산지수 작성에 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 멕시코와 더불어 현재 서비스업 생산지수 작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뉴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사례분석 1:  
<멕시코의 시험단계 서비스업 생산지수>
  -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 운송 및 화물업 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개

## 7. 산업분류 개정 이행 및 Backcasting 기법

- 산업분류 개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Eurostat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시계열 연결기법의 권고사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TF 팀을 구성해야하는지 여부 논의
-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가중치 재산정 및 시계열 연결기법에 대한 OECD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장기 시계열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앞서서 연구를 해 줄 것을 당부
- 사례분석 1:  
<Eurostat의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발표>
  - 시계열 연결 기법 선택, 시계열 길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고찰

## 8.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 개발

- 이전 회의자료 요약
  -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절조정기법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고 최근의 기법 진전사항 소개(2002)
  - 계절조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권고안 작성(2003, 2004)
    - 용어정의, 증감률 공표방식,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할 계절조정 정보 등
  - 나라별 계절조정기법이 여전히 상이하고 Eurostat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2006 STESWP에서 주제 채택 여부 검토(2005)
    - 계절조정 관련 핸드북은 EUROSTAT에서 추진하여 헝가리 통계청에서 작성중임
  - OECD에서 다루어야할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의 향후 계획 논의(2006)
- 사례분석 1:  
<헝가리의 유럽통계시스템에서의 계절조정기법 방법 발표>
  - 간략한 핸드북 소개 및 유럽에서의 계절조정기법 사용 현황 소개
- 사례분석 2:  
<캐나다의 계절조정 컴퓨팅 기법 소개>
  - 현재 캐나다에서 계절조정을 수행하는 절차 및 사용 프로그램 소개

○ 사례분석 3:

<Eurostat의 계절조정기법 가이드라인 초안 소개>

- Eurostat에서 작성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 발표
-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지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의 영업일수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무 문제 처리 방법 등 토의

## 9. 주요 비 OECD 회원국의 단기경제통계 작성 사례 및 국제비교

- 주요 비OECD 회원국(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단기경제통계의 최근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OECD 회원국들의 주 지표와의 비교성 문제 논의
- 작년까지 주요 비 회원국들의 단기경제통계 작성현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자료의 비교성에 중점

○ 사례발표 :

<브라질의 단기경제지표 소개>

<중국의 통계 프로그램 및 방법론 개정>

<러시아의 단기경제지표 소개>

<칠레의 단기경제지표 소개>

## 10.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 회의 이전에 실시된 단기경제통계로서의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 자료의 각 국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자본적 지출 및 기업 잉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여부, 향후 작성 계획, STESWP 주제로의 편입 여부 등

○ 사례분석 :

<벨기에의 투자부분 단기경제통계 작성 소개>

<노르웨이의 분기별 투자 통계 작성 소개>

<캐나다의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소개>

## 11. 단기경제통계 시의성 제고 프레임워크

- 이전 회의자료 요약
  - 시의성 및 벤치마킹 기법 향상을 위해 제안
  - 비용 절감 및 정확성 증진을 위해 시의성 제고 프레임워크 작성하여 베스트 사례 수집
  - 프레임워크의 이용률이 낮아 프레임워크의 유지 여부 논의 결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의견 다수로 결정
- 각 국 통계청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프레임워크의 존속여부 논의가 계속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비 OECD 회원국이며 통계훈련도구로서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12.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의 종합지수 거시경제지표로서의 역할 및 필요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국 또는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GDP 산정에서의 디플레이터 역할로서 개별 생산자지수만을 생산할 뿐 거시경제 물가지표로서의 종합지수 생산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Eurostat와 협력하여 종합지수 필요성 여부 및 작성 방법의 가이드라인 검토하기로 함
- 사례분석 :
  -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 작성 소개>
  -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자물가지수(기업 서비스 물가지수) 소개

## 13. 유통통계(구조통계 및 단기통계)에 관한 UN의 가이드라인 개발

- 기존의 UNSD의 유통통계 국제기준 개정과 관련한 지원 요청
  - 최근까지의 국제통계기준 개발 관련 UN 작업 소개
  - 향후 STESWP, UNSD와 기타 UN 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작업
  - 국제 기준 개발 과정 소개



- UN의 유통통계 국제기준 권고사항에 대한 초안 문서 ver2는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함

[http://unstats.un.org/unsd/distributive\\_trade/distributive\\_trade\\_draft\\_documents.htm](http://unstats.un.org/unsd/distributive_trade/distributive_trade_draft_documents.htm)

-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각 회원국들은 7/10일까지 의견 송부 바람

## 14. 향후업무

- 주요사항
  - 현재의 활동과 관련하여 타 국제기관과 업무 중복을 회피하며 Eurostat 및 UN과 같은 타 국제기관과의 협력 증진
  - 사업체 및 소비자 전망조사와 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s)는 EC/CIRET와 함께 타 Forum을 구성하여 수행
  - 기타 작업반과 함께 국민 계정 및 무역통계 논의
- 중단 작업
  - 단기통계로서의 자료 수집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본적 지출 및 기업잉여에 대한 단기경제통계 주제는 앞으로 더 논의 하지 않음
  - 서비스업 생산지수 매뉴얼은 향후 작성 계획이 있는 나라와 함께 작업을 계속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음. 단, 서비스업의 매출액(Turnover)과 관련하여서는 Eurostat과 작업 연계 계속
- 향후 작업
  - 단기경제통계 수정분석 TF 완료
  - 통계자료와 함께 각 나라별 사례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경제통계 제공 및 분석방법 개선 및 개발
  - OECD Presentation 핸드북의 주요 권고사항 이행
  - 산업분류 개정과 관련하여 시계열 연결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 수행
  - 계절조정기법 지침서는 Eurostat의 작업을 따르기로 하며, OECD에서는 주로 비 회원국들의 사례 및 Eurostat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 한정

- 3~4개의 주지표를 대상으로 비 회원국의 단기경제지표와의 비교성 연구
- 서비스업 생산자지수 총합지수 연구
- UNSD와 협력하여 국제통계기준 개발
- 행정자료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지속

○ 기타 작업

- 단기경제통계의 그래픽적 표현에 대한 권고 사례 개발
- 단기 서비스업 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발
- 지역 자료 취합 및 비교 분석 연구
- 통계자료 유효성 기법의 최근 개발 사항
- BTS 자료를 이용한 산업생산 추정 및 예측 기법 개발
- 단기경제통계 비밀보호에 대한 각 국 사례 등